

# 사법연수생 신행모임 '다르마법우회' 창립

## 매월 두차례 정기법회·매주 교리공부 정진

사법연수생들의 신행모임인 '다르마법우회'가 창립됐다. 사법연수생 제27기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르마법우회는 지난 1일 성남 정토사에서 37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매월 두차례

의 정기법회와 매월 1회의 불교 공부모임을 통해 신심을 다져나가기로 했다. 사법연수생은 사법고시 합격자들인 예비법관들의 연수기관으로, 이곳의 2년과정을 수료하면 법원과 검찰에서 판·검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사법연수원에는 개인교와 가톨릭신자들의 모임은 있었으나 불교모임은 없었다. 지난 80년과 90년 몇몇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모임이 꾸러졌으나, 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모임도 명맥을 잇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이곳 연수원교수로 부임, 다르마법우회의 실질적인 산파역을 한 김희옥교수(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연수생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관으로 진출하면 그만큼 불교적 심성이 필요하다"며 "부처님의 가르침, 즉 진리를 추구하는 법조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법회를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만인의 평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한국사회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불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적 가치를 함양해야 올바른 법관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다르마법우회 창립이 갖는 의의를 설명했다. 법륜스님(한국불교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지도법사로 모신 다르마법우회는 지난 15일 전조계종총정 서암스님을 초청, 창립 이후 첫 법회를 봉행했다. <정성운 기자>



◇사법연수생들의 신행모임인 다르마법우회는 지난 15일 서암스님을 초청해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 부산 초파일 봉축준비위 결성

#### 위원장에 도봉스님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부산 봉축행사 준비위원회의 결성법회가 지난 14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열려 준비위원장에 찬불사 주지 도봉스님이 위촉됐다.

이날 결성법회에서는 또 대 회장에 법어사 주지 성오스님, 집행위원장에 혜충스님, 봉행위원장에 부산불교신도회장 류진수씨를 위촉하고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연합봉축대법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준비위는

봉축 제등행렬은 교통불편을 감안해 폐지키로 하고 올해부터 카퍼레이드 형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산 순환도로변에 대원회, 도라지 방생

대원회(이사장 박운호)는 지난 14일 서울 남산일대에 도라지를 심는 방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부터 성인부 회원 등 1백여명이 참석, 공익이용객이 많은 순환도로변에 도라지를 심었다.

### 전방OP 봉축점등

#### 29일 까치봉서 시작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북한주민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밝히는 봉축등이 29일 까치봉 점등을 시작으로 13개 전방부대에서 봉행된다.

전방부대 봉축 점등일정은 다음과 같다.

- 까치봉(4월29일) 천지OP(4월30일) 도라지OP(5월1일) 애기봉 OP(5월2일) 태종전방대, 통일전방대(5월3일) 별곡OP, 509OP(5월6일) 종각OP(5월7일) 을지전방대(5월8일) 백암OP, 아산OP(5월14일)

### 조계종 10기 행자교육원 회향

#### 2백51명 수계... 사미니가 7명 많아

조계종 제10기 행자교육원 회향식 및 수계식이 지난 16일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주지 오복원) 만덕전에서 봉행되어 남행자 1백22명과 여행자 1백29명 등 총 2백51명의 행자가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관련인터뷰 4면> 22일만에 결친 교육의 마지막 날인 이날 회향식 및 수계식은 송원주 총무원장을 비롯 교 육원장 원산스님, 행자교육원장 녹원스님, 유나 보성스님, 교수 사 석성우스님과 행자교육생들 3백여명의 대승이 참석했다. 일주스님은 치사를 통해 "초

발심이 변장각이나 초발심때 갖는 해탈과 중생제도의 서원을 굳게하여 정진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앞서 녹원스님은 교육필증을 수여하면서 "지난 일정동안 고행에 고행을 거듭한 것은 숙연으로서 몇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불 중자를 심은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14일 새 회장단 선출 전국신도회 활성화대책위

전국신도회 활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김양수)는 지난 13일 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4일 제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새 회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총회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나눔 연동, 나눔 마음  
봉축위 연동선물하기 캠페인



◇조계종 4교구 신도회는 지난 17일 총회에서 정암사 만항지구 개발반대 입장을 밝히고 1천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 안동 제비원 미륵불 훼손위기

#### 인근 주유소 건립·국도확장 예정 소음 진동 우려

경북 안동소재 제비원 마애미륵불(보물 제115호) 맞은편에 주유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성보문화재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다.

마애미륵불을 관리하고 있는 연미사주지 효성스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안동시가 마애미륵불에서 35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주유소 건립을 허가했다"며 "주유소가 들어서면

경관훼손은 물론 소음 진동으로 불상의 균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제비원 부처님은 불교성보이면서 안동의 상징으로 주변에 업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지난 16일부터 신도를 비롯 안동시민을 대상으로 주유소 건립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수(대구대 박물관장)도 "문화재인근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동시가 업종허가를 먼저 내주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는 보물 등의 문화재에서 1백m 이내의 건축물은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현관 효성스님은 제비원 마애미륵불 앞 10m 거리에 있는 안동-영주간 국도가 4차선 확장 예정구간으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 법주사주지에 혜광스님 선출



사에서 득도,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은척사 실상사 주지를 역임했다.

제적 4명·공권정지 5명 재심 호계원 징계판결

조계종 제5교구 법주사는 지난 16일 공현당에서 산중총회를 갖고 혜광스님을 법주사 주지로 선출했다. 8명의 스님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신일 법주사 주지 혜광스님은 55년 법행스님을 은사로 봉선

조계종 재심호계원(위원장 고산)은 지난 15일 제4회 재심호계회의를 갖고 제적 4명, 공권정지 5명등 징계판결을 확정했다. 징계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적: 도흥 덕수 운성 원경, 공권정지 5년: 관평 각밀 정암, 공권정지 3년: 보장

### "고속철 경주도심통과 강행할듯"

#### 건교부, 형산강노선 지하화 연장 검토 백지화추진위, '反문화 정책' 비난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일 경부고속철도 경주 통과백지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에 회신을 보내 "형산강노선의 지하구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주도심 통과 강행의사를 거듭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시행청인 고속철도건설공단도 15일 "고속철도 주요사업 및 현황" 자료를

반면에 42.7%에 이르는 149명의 주민이 대화에 다소 지장이 되고 TV와 라디오 시청이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 불교계 큰일꾼 체육대회

불교계 신문·잡지·출판·방송사에 종사하는 불자들의 단합도모의 장인 제1회 불교계 큰일꾼 체육대회가 지난 14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창원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경주도심통과노선(확정노선)을 강력히 주장해온 경주확정역사수 범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김성수·경주시의원)는 지난 3월초 일간(경주발전)에 협의회 이름으로 '경부고속철도 노선 문제에 관한 의견'이라는 글을 통해 지금까지의 주장과는 달리 경주도심 15km 우회노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 글에서 "경주만 통과하면 어느 노선이

#### 운동선수 후원의 밤

#### 동국대, 야구부등 격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15일 엠베서더호텔에서 96 불철 대학리에서 강호 한양대를 물리치고 9년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오른 야구부 선수들을 비롯한 축구 농구 레슬링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한 '96 동국대 운동선수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석구총장, 정각원장 법산스님, 후원회장 정용길 행정대학원장, 야구감독 황동훈씨, 축구감독 최종덕씨와 선수 1백여명이 참석했다. <구독신청: 737-0693>

**마음** 고통도 즐거움도 놓아야  
고가 덕치면 덕치는대로, 증거음이 오면 오는데도 놓아야 합니다. 증경다고 불등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된 변합니다. <하영우(연)>

**협찬** 한마음선원 법행제회

### 소년소녀가장돕기

## 대행스님 법회와 불교음악제

부처님께선 중생의 숭배를 받고자 오신 게 아니라 중생에게 "마음을 깨달아 부처 되는 길"을 가르치시고자 오셨습니니다. 마음 - 그 무궁무진한 대자유의 세계로 여러분의 일상을 이끌어 주시고자, 여기 대행스님의 법회를 마련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영원한 자유인으로 나아가는 법열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뿌리는 모습이 없어 그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나 산에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그 뿌리를 의심하지 아니한다. 하물며 인간의 뿌리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다 하여 제 뿌리를 어찌 믿지 않고 없다 할 수 있는가?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지원장 혜월 신도회장 김희남 합장

- 대행스님 법어중에서 -

- 일시 ..... 불기 2540년 4월 28일 (일) 오후 2시 ■
- 장소 .....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
- 후원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광주광역시 불교광주방송, 전남일보, 현대불교신문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禪院)광주지원  
우) 502 - 270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 - 5  
전화 : 062) 373 - 8801~3  
팩스 : 062) 373 - 0174